

화순군 '1만원 임대아파트' 인기폭발...경쟁률 10대1

50가구 모집 12일 만에 청년 506명 몰려...다음달 선정·7월 입주 민간아파트 활용 지방소멸 대응 주거대책 다른 지자체 잇단 문의

화순군이 '월세 1만원'을 내건 임대아파트 공모에 12일 만에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몰려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추진하는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506명이 신청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 대상은 50명으로, 경쟁률은 10.1대 1을 기록했다.

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은 전세 보증금 4800만 원을 화순군이 민간임대아파트(부부영주주택)에 대신 내주고 재임대(전대)를 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월세 1만원만 받기로 하면서 '만원 임대주택'에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로 낸다. 아파트에 입주하면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24일에는 78명이 지원했고, 접수를 마감한 이달 4일에는 1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주거 복지제도에 대해 전남 10여 개 시·군과 강원, 충남 등

다른 자치단체의 문의가 화순군에 잇따랐다. 군은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검토를 받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끌어들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만든 하나의 대안이다.

집이 없는 만 18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이나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시기에는 나이 제한을 39세 이하로 뒀지만, 대상 폭을 넓히기 위해 49세 이하로 기준을 설정했다. 단 만원 임대주택 입주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는 단서를 뒀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화순지역 20~30대 인구는 지난 1999년 이후 23년 연속 순유출을 이어왔다.

지난해 화순 20~30대 인구 304명이 순유출됐는데, 이는 전년 순유출 인구 277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화순군은 오는 10월 50명 추가 대상을 모집하며, 1년에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장 6년간 1만원의 월세를 내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만원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다. 화순읍에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 전경. <화순군 제공>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화순군이 들이는 예산은 모두 192억원(4800만원X총 400호)이다. '전세형'이라서 신청자가 아파트를 떠나더라도 화순군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화순군이 공급하는 부영아파트는 시내버스로 광주를 오갈 수 있는 화순읍 광덕리 등지에 있다. 20평형(전용면적 49.9㎡) 규모로, 차로 3~4분 거리에 군청과 대학병원, 초등학교 등이 있다.

화순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민간 임대주택 활용안'은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보다 예산 부담이 덜하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공실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만원 임대주택에 포함된 부영 6차 아파트(1998년 준공)의 경우 1500세대 가운데 177호가 비어있어 공실률이 11.8%에 달했다.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 활용안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교육(-4300명)과 직업(-2200명) 등의 사유로 순유출이 발생했고, 주거 때문에 순유입한 인구는 400명에 불과했다.

신보름 화순군 도시과 주무관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입주 문의가 하루 평균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입주자를 발표하고 오는 7월에는 입주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제 기자 byj@kwangju.co.kr

4년만에 열린 담양 대나무축제 63만명 구름인파

5일간 다채로운 행사·체험 즐겨 농특산물 판매 실질 소득 이끌어

'가자 대숲속으로'를 주제로 4년 만에 열린 담양 대나무축제(2023 New Bamboo Festival)가 60만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리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가뭄 속 연일 이어지는 단비로 방문객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음에도 닷새 동안 63만 명이 행사장 곳곳을 채워 굿은 날씨도 무색하게 했다.

3일부터 7일까지 펼쳐진 담양대나무축제는 축제장 곳곳을 채운 야간 경관조명과 대나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으로 MZ세대와 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대나무 어린이놀이터와 대나무로 만든 카누와 뗏목타기, 타겟을 모두 맞추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대나무 새총쏘기 등 다채로운 대나무 관련 체험과 이벤트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개막 첫날 담빛음악당에서 진행된 MBC가 요베스트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이 추성경기장을 가득 채워 장관을 이뤘고,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담빛 청소년 기 페스티벌 참여를 위해 전국



담양 대나무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7일 대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주변 경관을 만끽하고 있다.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담양을 찾아 열띤 경연을 펼쳤다.

농특산물 판매부스와 라이브커머스 방송, 택배비 지원서비스도 관광객 편의와 지역민의 실질적 소득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축제장 곳곳에서 대나무 보부상의 익살스런 거리 퍼포먼스와 운수대통 대박타르티기

이벤트를 진행해 어린이 방문객의 인기를 끌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오랜 가뭄을 해소해 주는 단비로 축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성원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했다"며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26일 시작

강진군이 지역을 축제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불금불파'를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병영시장 일원에서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축제를 연다.

축제장에서는 연탄돼지불고기 국수 한정식 등을 맛보고, 신나는 EDM 디제잉 쇼부터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도 만나볼 수 있다.

강진군이 자체 개발한 인기 상품 하멜맥주·하멜커피와 병영막걸리·사또주·살구리 등 지역 대표 먹거리도 구입할 수 있다.

축제 현장의 재밌는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프리미엄호플 등 증정하는 이벤트도 기획 중이다.

불금불파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불금불파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민선 8기 강진군의 강력한 의지도 담겨있다.

축제가 열리는 병영면은 전라병영성부터 한골



강진군 병영연탄불고기 한상.

목 옛 담장, 하멜기념관까지 병영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존재하고 여기에 지역 대표 먹거리인 연탄불고기와 신나는 음악을 더해 관광객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불금불파는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전인 만큼 병영을 넘어 강진 전체가 활력 넘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나주시 여름방학 학생 130명 영어 연수 지원

중학생 30명 미국 어학연수 초등생 100명 동시대 영어캠프

나주시가 올 여름방학에 초·중학생 130명 대상으로 영어 연수를 지원한다.

우선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샌디 스프링 프렌즈 스쿨에서 중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진행한다.

이달 중 각 학교장 추천을 받아 1차 필기시험, 2차 원어면접을 거쳐 대상자 30명을 다음 달 2일 선정·발표한다.

학교별로 대상 학생 수 비율을 지키고 대상자 30%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 자녀를 선발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1인당 어학연수 경비 700만원의 50%를 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경비를 모두 지원한다.

미국 샌디 스프링 프렌즈 스쿨은 1961년 설립된 지속형 사립학교다. 연수 참가자들은 현지 학생들

과 정규수업을 듣고 가정 방문(홈스테이), 미국 문화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나주시 초등학교 5~6학년생 100명은 동시대 학교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다.

영어 캠프는 동시대 국제교육원에서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캠프 참가자는 사회적 배려대상 30명을 포함해 총 100명을 뽑는다.

1인당 교육 경비는 130만원으로, 나주시는 이 가운데 91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전액 지원한다.

영어 캠프에서는 수준별로 6개 반을 나눠 영문법과 어휘, 작문 등 맞춤형 교육을 펼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학연수, 영어캠프가 학습 동기부여와 외국어 능력향상은 물론 전문을 넓히고 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비 대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야경. <함평군 제공>

아쉬운 폐막 함평나비축제장 21일까지 무료 개방

나비곤충 전시관 등 연장 운영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지난 7일 막을 내린 가운데 나비대축제 축제장인 함평엑스포공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함평군은 나비축제를 관람하지 못한 군민과 관광객을 위해 황금박쥐관을 제외한 함평엑스포공원 주요 전시관을 오는 2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비축제 폐막 후 일부 시설물은 철거했으나, 공원 내에 조성한 초화류와 포토존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육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친환경농업관 등

주요 전시관을 비롯해 축제 기간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를 끌었던 나비·곤충표본전시관도 연장 운영한다.

형형색색의 빛나는 조명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함평엑스포공원 야간 경관도 매일 밤 10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자장에 위치한 함평자동차극장에서는 매주(월요일 휴관) 신작 영화를 개봉한다.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란 주제로 개최한 올해 축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축제로, 총 15만375명의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입장료 판매액은 약 5억8500만원을 기록했고,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1억6600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각종 판매장과 음식점 매출은 3억8000여 만원, 부스 임대료 수익은 3000만 원 등을 기록하며 총 4억여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특히 최근 금값 상승으로 입소문을 탄 '황금박쥐상'은 올해 나비축제의 최대 스타로 떠올랐다. 순금 162kg과 은 281kg으로 제작한 황금박쥐상을 보기 위해 1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나비대축제 종료 후에도 축제장 개방을 요구하는 군민과 관광객이 많아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며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체장애인협회 장흥지회-로타리클럽 협약

장애인 복지사업 전문성 강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는 최근 장흥군 중앙로타리클럽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봉사 협력 체계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정희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 지회장과 신일성 장흥군 중앙로타리클럽회장 등 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흥 중앙로타리클럽이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 장애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하기도 했다. 후원금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추진하는 무료 이불 세탁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두 단체는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